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5

01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근대건축물 답사

- 故 김수근 건축사작 (구)전남도체육회관
 (현,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

시론

지구단위계획의 재인식_ 노경수

특별기고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_ 정명철

근대건축물 답사

광주에서 만난 故 김수근 건축사

건축과 도시계획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제2화_ 김현숙

서양의 주거문화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주택공급(과제)-제2화_ 남기봉

삶과 건축

건축가의 생존-제2화_ 윤기병

사람 & issue

호남의 현대건축을 이끈 대표적인 건축인 중의 한 사람_ 류연창

설계경기

순천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센터 및 국제교류교육·컨벤션관 신축공사

舊 전남도체육회관

故 김수근 / 류춘수 건축사



지구단위계획의 재인식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고...



노경수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kyngsuro@gwangju.ac.kr

도시에서의 인공적인 환경은 개별 필지에 지어지는 건축행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그러한 건축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건축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이 도시적 맥락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 모습은 하나하나의 건축행위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지만, 그것의 최종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게 그려진 밑그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도시계획이라 하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공익의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거시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는 반면에, 개별 건축행위는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적인 이익, 신규 건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 관련 방안 마련 등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들 간의 괴리가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영역이 필요해지고, 도시설계라는 개념이 확산된 것이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사고와 이념을 건축적 어휘와 문법을 상호 연결해주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서 한 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에서의 주장과 건축의 주장이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구단위 계획의 도입시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 제도였는데, 1991년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원적으로 운용되다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또 2003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된 역사는 아직 짧기 때문인지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에 미치는 중요성을 아직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어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서 개별 필지를 합해 종교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2개 이상의 획지를 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은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건축주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며, 이제는 5년 후에도 변경이 가능할 상황이라서 이 종교단체는 곤란을 겪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에 용적률의 하향규제와 합필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건축주는 그 규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필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려하였으나 역시 불허처분을 받았다.

설사 합필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용적률 상한이 250%가 일반적이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준용적률을 180%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아보아도 200%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건축주는 빛까지 얻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려했는데 예상 밖의 장애로 큰 낭패를 보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규제

광주시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10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의 단독주택용지에서 교통(주차장 부족), 환경 악화 등으로부터 주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의 40% 허용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과거의 건축물(허용)과 신축건물(불허)간의 적용상 형평성, 지구 내 유사한 토지를 차별하는 기준의 모호성, 인접지구의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다. 이에 시당국이 한발 물러나면서 진정되었지만, 행정규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적잖은 손상을 입었다.

한편에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지역에서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어 아파트 건설의 사업성이 없으니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완화할 때, 대지의 물리적 조건상 완화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가상적으로 개발규모의 증대로 반영되어 토지가격에 거품을 형성한다. 실제 이용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은 결국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게 된다. 반면 대지의 물리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로 인해 건축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위 '나홀로 아파트'가 건설되어 기반시설의 부족, 경관·미관의 부조화, 일조권 침해 등 주변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이렇게 특수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지만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 전체에 일률적인 용적률 완화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을 통한 특정 용도지역 전체의 용적률 완화를 특정 토지의 개발규모를 증대시켜 개발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용도지역 전체를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몰아날을 수 있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물이해에서 나온 발상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정착한 지 8년 정도 되면서 토지형질 변경 등의 국토계획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의 토지이용에 관련한 사업에서 중요한 계획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본래 기대한 목적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엉겨주춤한 상태로 머물러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결국 '마을 만들기'와 접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도개선도 해야겠지만,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공익의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거시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는 반면에, 개별 건축행위는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적인 이익, 신규 건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 관련 방안 마련 등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들 간의 괴리가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LG Hausys

창에 대한 모든 것

Z:IN Window Plus

유동전시장 062) 525-6801
평동전시장 062) 943-6801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

- 내진설계는 건축사의 업무분야이다.
- 내진설계와 내진 보강은 건축사역할아래 전문분야를 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명철 건축사
(주)에이엠펙그룹 건축사사무소
ma20000@hanafos.com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 옥상 수영장 전경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 전경

지난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대지진, 2010년 1월 13일 아이티지진에 이어 최근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진에 의한 심각성을 느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웃 나라들의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선 내진설계는 무엇이며 건축물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과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자.



목포포초등학교 및 목포유일중 내진보강 적용사례

내진설계의 정의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뜻하며,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지진에 의한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진의 크기를 대표하는 수치로는 절대적 개념의 '규모'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규모는 지진발생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표현하는 단위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진도는 지진으로부터 입은 피해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이고 로마숫자로 표현한다. 여기서 진도와 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진도	규모	나타나는 현상
I	1.0~2.9	극소수의 사람만 느낀다.
II·III	3.0~3.9	건물의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낀다
IV·V	4.0~4.9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문 등이 흔들리거나 깨지기도 한다.
VI·VII	5.0~5.9	모든 사람이 느끼는 수준으로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거나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긴다.
VIII·IX	6.0~6.9	일반 건축물에도 부분적인 붕괴현상과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한다.
X·XI·XII	7.0이상	대부분의 건축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지고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긴다.

표1. 진도와 규모에 따른 현상

표에서 나타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진도의 등급은 미국의 MMI 12등급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유감지진은 규모 3.0 이상을 말한다.

내진설계 기준 도입과 변천사

년 도	내진설계기준
85~95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96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99~04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지구구역,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05~09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구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09.7월 이후 ~ 현재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표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이력

기존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세계적인 대항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각 나라들은 내진기준을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내진기준을 보완하며 국내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왔다.

내진설계를 할 경우 건축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설계 공법과 디자인 등을 활용하면 인상은 큰 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건축 규모와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의 의견을 살펴보면 "내진설계를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철강을 더 넣는 등으로 인해 비용을 일부 상승하겠다"면서도 "전체 공사비에서 골조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20%~30%인데 이를 감안하면 전체 공사비 대비 많아야 5%이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내진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면 미

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내진보강을 통하여 증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극 장려해야한다.

건축사의 역할

기존건축물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설계가 이루어지면 이에 건축사는 각 분야의 설계도서를 취합,검토하고,건축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를 작성,제출하여 현장 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로 보수보강은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되므로 구조에 기능과 미를 가미한 건축마감과 디자인이 더해져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를 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따른 보수보강은 건축법상 개축(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 중 3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 중 2개소 이하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법 제11조), 건축신고(법 제14조)를 하여야 한만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본인은 작년연말 가족과 함께 5박 6일 여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는데 숙소를 마리나 베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적지않은 비용을 감수하고 그곳에 머물러 이유는 세계적인 건축가 모세 사프디가 설계하고 우리나라의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시공하여, 세계의 건축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만큼 이슈가 된 건물이기 때문이다.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건 호텔 옥상 노천수영장인 스카이프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높은 수영장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두창의 카드가 마주본듯 52도기량 기울어진 호텔외관은 그야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세상에 알려진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하면 우리는 제일먼저 모세 사프디라는 위대한 건축가를 떠올린다. 그 호텔에 적용된 경사구조물과 수직구조물의 구조 방법이 우리나라 건설신기술 제 608호라는걸 아는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축물을 기억할 때 건축가,시공사 정도 기억하지 각 전문분야별(구조, 전기, 설비 등) 알지 못한다.

건축물은 건축가가 그려놓은 커다란 밑그림에 유능한 전문엔지니어들이 세분화된 터치를 가하여 완성된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내진설계나 내진에 따른 보수보강은 구조부분만의 특유의 업무가 아니라 건축부분안의 일부부분으로 건축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축사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사의 구조분야 업무역할 축소 우려를 해소 할 필요가 있다.

시사 및 교훈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접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지진이나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는건 꼭 필요한 일이다.

앞서 발생한 지진발생나라들의 피해상황과 규모를 살펴보면, 지구규모나 진도에 따라 피해상황이 달리 발생하겠지만 이웃나라의 일본상황을 보았을때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와 의식이 피해상황에 많은 편차가 있을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진대응훈련생활화과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단한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본다. ■

빛고을 시민문화관 별관(구, 전남도체육회관, 1981)

건축물 탐방 光州에서 만난 故 김수근 건축사

(구)전남도체육회관은 인근에 있는 구동체육관(1965)이 '빛고을시민센터 건립계획(2006.9/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명칭변경)' 수립 이후 2008년 3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신축건물이 완공될 시점엔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5층으로 계획되었던 빛고을시민문화관을 4층으로 축소하여 광주공원의 조망권과 광주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그 축소된 공사비로 (구)전남도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자는 안으로 최종 확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으로 사용되면서 이제야 그 가치를 일부나마 후대에 알리게 되었다.

건축과 자연이 하나됨을 느낀다.



故 김수근(金壽根)
(1931 ~ 1986)

건축가 故김수근이 타계한 지 올해로 25년이 흘렀다. 그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건축가이자, 교육자이며, 잡지 발행인이기도 했고 예술가들의 후원자이었다. 김종업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 건축 1세대로 평가받으며, 한국건축사(史)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다방면에 걸친 한국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197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후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1449-1492, Lorenzo de' Medici)에 필적하는 권력자이며 르네상스의 산

파역할을 한 인물로 비유되어 '한국의 로렌초 메디치' 라고 추켜세울 정도였다.

한국건축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김수근. 먼저 그의 건축 유형의 변화를 간단히 보자.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진취적 조형 예술'의 추구다. <자유 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노출 콘크리트의 거대 구조물이 60년대 건축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 보다는 건축이 우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는 '건축으로의 회귀'라 한다. 1967년에 <부여 박물관>의 왜색 사비를 계기로 김수근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건축을 위한 인간'이 아닌 '인간을 위한 건축'을 고민한다.

1980년대는 '다양한 미의 추구'시대다. 획일적인 분위기의 건축에서 벗어나서 크기나 느낌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을 추구했다.

故 김수근은 70년대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대한 고민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재료, 가장 한국적인 건축재료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하게 된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붉은벽돌, 즉 벽돌을 가장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건축재료로 보게 된다. 그 시기의 작품들로 공간사옥(1977)과 대학로의 여러 건축물, 경동교회(1980)와 불광동 성당(1981) 등이 있다.



▲ 자연암반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외부공간

(구)전남도체육회관(1981)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 벽돌을 주 외장재로 사용하였다. 체육회관이라는 용도와 주변 암반의 자연지형과 레벌차이를 잘 극복한 작품이다. 배면부에 있는 서오층석탑(보물109호)과 연계한 다이내믹한 동선과 스카이라인,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을 배려한 1층의 매스 분절 등에서 그의 자연과 도시의 맥락을 중요시하는 건축철학을 엿볼 수 있다.



▲ 옥상광장하부의 소규모상가들을 배려한 매스의 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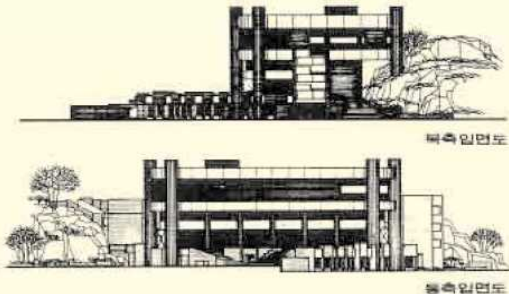
(구)전남도체육회관

설 계 : 故 김수근 / 류춘수 건축사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대지면적 : 3,868.9㎡
건축면적 : 1,911.0㎡
연 면 적 : 6,106.0㎡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좋은생각'

본지에서는 호남지역 건축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지면을 기획하였다. 지난 4월 28일, 본지 편집위원들이 광주광역시 구동에 위치한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구)전남도체육회관]을 찾았다. 건축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전면도로에서 2층 옥상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단 진입부는 필로티로 처리하면서 바위(巖)의 형태를 그대로 노출시켰고, 절묘하게 그 위에 건물의 기초를 올려놓은 것은 자연과 인공, 그 조화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 전면도로에서 필로티로 구성된 주 출입구

전면출입구 우측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서오층석탑으로 이어지는 공원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 길고 좁은 유리창이 시야에 들어온다. 흡사 르 꼬르뷔지에(1887~1965,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의 근대건축 5원칙인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 옥상정원, 필로티, 수평창으로 대표되는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1929~1931)의 일면을 보는 듯도 하다. 여러 가지의 면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공원탐방로에서 보여지는 길고 좁은 수평창

이런 훌륭한 본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작품이 30년 전부터 광주에 있었으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건축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나마 헐릴 계획이었던 것을 지역건축인과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아본다.

근대건축물이 역사적인 독립성을 갖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시기는 문화재보호법(1962년)이 생긴지 40여년이 흐른 2001년 개정 때부터다. 이때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목적이 추가되어 그 해 9월에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이 생겨났다. 하지만 법적인 적용건축물은 지어진지 50년이 지나야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 후 40년 전후의 근대건축물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검증 없이 철거하는 것은 문화자산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취재·정리 : 박홍근 편집인 aforyou@naver.com
박중호 건축사기자 k20715@nate.com

김수근 건축사의 근대건축물, 역사와 함께 사라지다.

- 서울 한국일보사옥, 세운상가 등 헐리고 사라져가

한국 근대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김수근 건축사의 작품들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 중학동의 한국일보사옥의 경우 2007년도에 철거되었으며 1967년 준공된 세운상가도 2012년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대표작으로 손꼽는 구 부여박물관도 1993년 국립부여박물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된 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로 쓰이다가 최근엔 연구소마저 이전하게 되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근대건축사(史)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속속 사라짐에 따라 지난 2008년 서울시는 김수근 건축사의 초기작품인 서울 을지로 입구의 5층짜리 '오양빌딩'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 방안의 답안을 보여준 자지단체

- 대구시 : 근대역사관으로, 공주시 : 카페와 전시장으로 활용

대구시는 산업은행 대구지점을 리모델링해 근대 역사관을 설립, 최근 개관하였다. 지난 1931년 조선 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은 단순하게 처리한 정면부의 장식과 수평선을 강조한 지붕 슬라브 처리 등 건축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리모델링하였다. 충남 공주시도 1920년도에 지어진 공주읍사무소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마을의 문화중심공간으로 삼았다. 2층은 근대양식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되 1층 내부를 디자인 카페로 2층을 전시장으로 바꿔 놓았다.

이처럼 타지역에서는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세우고 있으며 최근 대전지역 역시 '대전 근대건축보존연구회'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물로 남기는 사업 진행 중

- 실체보존을 위한 노력 또한 이뤄져야..

광주시는 2015년까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 100여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책이나 CD 등의 형태로 영구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이 지역 건축인들과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한 관계 공무원에 의해 계획되었다. 늦게나마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 다행이지만 실체보존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옛 전남도청 인근 광주YMCA 금남로관 옆의 일본식 목조주택을 비롯한 남광주역사 등이 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철거된 예가 있다. 앞으로 또 어떠한 근대건축물이 사라질지도 모른 상황에서 기록 사업에 앞서 실체보존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징계 사유?

광주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김수근 건축사의 작품인 (구)전남도체육회관 보존을 위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 관계자가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턱지방적으로 발주한 총사업비 408억원 규모의 빛고을 시민문화회관공사와 관련해 추수를 5층에서 4층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한 뒤 감액된 40억원을 (구)전남도체육회관 보존을 위한 리모델링에 전용하였다. 행안부는 이에 광주 빛고을시민문화회관 공사과정의 부당 설계변경과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경징계처분요구를 광주시에 보내왔다. 다행히 광주시 심의 결과 설계변경 과정에 큰 문제가 없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경징계 양형 중 가장 가벼운 조치인 불문조치를 결정했다.

물론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나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이 광주천과 광주공원에 비해 고층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1981년에 완공되고, 초기 현대건축물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면 후대에 물려 줄 훌륭한 문화유산의 손실이 이어졌을 것이다. 문화강국을 내세우는 정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향하고자 하는 광주시는 행정절차상의 유연함과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노력을 보여줄 때 인 것 같다.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제2화 : 일제강점기말 전주 시가지계획과 도시정비

- 제1화 : 일제강점기 가로정비에 의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2011년 4월호)

본고는 일본도시계획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1993년 성곽 도시 전주에 있어 성곽과 상업공간의 구조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및 1994년 성곽도시 전주에 있어 시구개성에 의한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분인연구로 기 발표한 내용을 밝혀드립니다. (5회 연재 기획)

김현숙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khs4053@jbu.ac.kr



1938년의 전주 시가지계획도

전주 최초의 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은 1938년에 수립되었다. 당시 전주는 교통·행정·경제의 중심지로서 1919년의 인구 16,535명이 1935년에는 40,5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높는데 비해 도시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의 신축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가지계획이 요청되었다.



한벽당-전주천 도로공원 추정공간 전경



완산교-완산도로공원 입구 추정공간 전경



1966년 팔달로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종합경기장)

1930년대에는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의해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현저해짐에 따라 가로의 정비를 중심으로 한 시구개정사업으로는 도시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선진유럽의 근대적 계획이론을 적용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므로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계획령에 따른 시가지계획은 조사·분석-계획의 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30년의 장기적 도시구상, 지역지구제의 채택, 도로·철도·광장 등 24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계획의 실행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주 최초의 도시계획

전주 최초의 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은 1938년에 수립되었다. 당시 전주는 교통·행정·경제의 중심지로서 1919년의 인구 16,535명이 1935년에는 40,5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높는데 비해 도시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의 신축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가지계획이 요청되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인구, 계획구역, 가로망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구의 지정 등이다.

시가지계획의 기준년도는 1938년, 목표년도는 1967년, 계획인구는 당시 행정구역내 인구 40,593인을 기준으로 1919년 이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한 인구산출에 의해 목표연도에 10만인으로 책정하고 있다.

계획구역은 목표연도 인구 1인당 총면적 약 200㎡, 거주적지면적 약 150㎡를 기준으로 당시 시가지 주변의 지형, 지적, 교통 등을 검토하여 기존 시가지의 북측면 현재의 금암동, 인후동 일대로 확장된 19,576천㎡를 결정하였다. 또한 토지의 이용증진을 위해 기성시가지 및 산지·녹지를 제외한 8,615천㎡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교통체계는 1등, 2등, 3등 도로로 구분되는 경성 및 주요지역간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위계를 확립한 후, 통행의 편리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교통축세, 가로변 건축을 높이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57개 노선(대로 16선, 중로 41선)과 대로의 교차점 16개소에 광장을 계획하였다. 현재의 팔달로와 관통로가 이 계획에서 도심의 중추적 간선가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청광장과 덕진광장 등이 이때 지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43년에는 전주의 고적·명승지·경관지 보호를 위해 3,150천㎡를 풍치지구로, 시민의 휴양·오락과 도시미관을 위해 오목대·완산·다가·덕진공원을 포함한 10개소 997천㎡를 공원으로 지정하였

으며, 오늘날에도 선진적 기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벽당-교동-다기동 구간의 전주천도로공원과 완산칠봉입구에 이르는 완산도로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가지계획에 의한 공간구조의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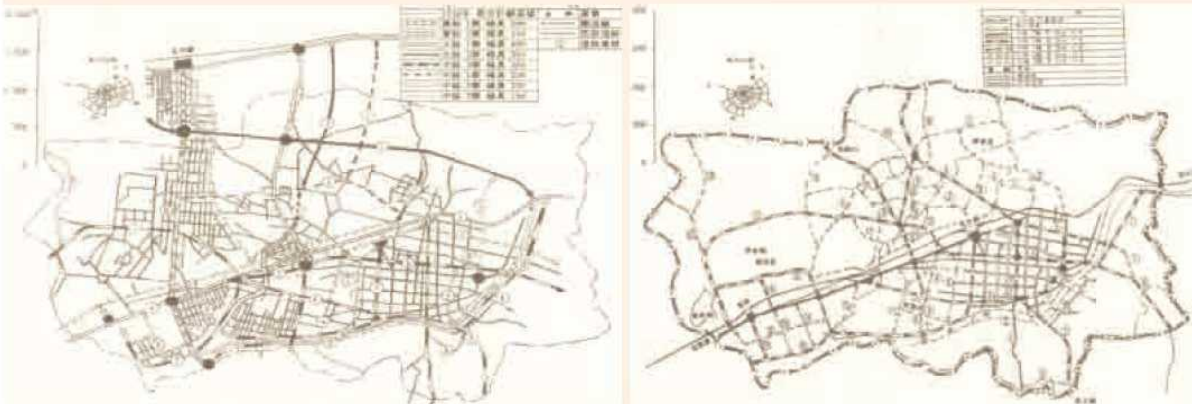
전주 시가지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공간구조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심부의 가로체계가 4대문을 연결시킨 동서가로 및 남북가로의 확장을 지양하고 대로 3류의 팔달로와 관통로를 새롭게 계획함으로써 구 간선가로와 신 간선가로의 이중적 가로체계를 형성하였다. 구 간선가로는 이미 상점가로서 번성하고 있었으며 토지주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으므로 이곳을 대상으로 폭을 확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간 및 지역내 가로는 기존의 철도·전군도로, 계획된 팔달로·관통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철도의 남측에서는 계획가로의 많은 부분이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전주역 중심의 토지이용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으며, 덕진역과 전군도로의 관계로부터 금암동 일대로 계획구역을 확장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과 신시가지 조성이 의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역의 입지와 더불어 덕진동 일대는 1953년 국유지 21,185평이 전북대학교 교지로 확정되면서 안정적인 발전이 약속되었으며,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른 금암동 종합경기장까지의 시흥팔달을 목적으로 개통된 팔달로는 전주시의 발전축을 도심의 동측대신 북측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주 시가지계획 수립 후, 일본은 중일전쟁 및 제2차세계대전을 치러야했으므로 식민도시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잃었으며 1945년 종전에 의해 실제 집행된 사업은 미미하다. 그러나, 1938년의 시가지계획은 1962년 시가지계획령이 도시계획법으로 계승되면서 수립된 1966년의 전주 도시계획재정비의 모체가 되면서 오늘날 도시구조를 형성한 초석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1938년 가로망계획도와 같은 지역 1986년 가로망현황도의 비교 (출처:성곽팔달과 도시계획연구, 장영수, 1994)



냉전시대 동서 분단 독일 장벽 흔적



독일에서 생산된 차 트라비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주택공급(과제)

제2화 :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과제

- 제1화 : 가정공동체 형성과 주거환경 그리고 주거실태 (2011년 4월호)

동양과는 다른의미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서양의 주거문화를 알아보고자 '서양의 주거문화'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지난 호에 이어 독일건축의 전문가인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의 원고가 게재된다.

- 편집자주

남기봉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kbnam@dsu.ac.kr



통일과 (구)동독인의 기대

통일 후 독일 자동차산업은 사상 유래 없는 호황기를 맞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 기아/현대 자동차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동부독일에서 큰 매출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그동안 공산정권은 인민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수준 정도로 삶의 질을 보장한다. 그러나 통일 후 (구)동독인은 그동안 억눌려 통제되던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단기간 내에 향상시켜보려는 욕구를 표출한다. 이웃 부유한 서독형제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풍요한 생활을 이미 TV와 통신교류 또는 상호박문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저 바라보아만 하는 실정에서 이제 그들에게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개인적 자유와 자유의 첫 번째 상징물인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들에게 자동차 소유를 가능하게 한 것은 흡수통일시 동독과 서독화폐를 2:1로 환율로 교환해 준 배려정책의 결과이다. 실제로 당시 공식거래에서 동독의 화폐가치는 서독의 1/5정도며 장외거래에서는 1/20정도로 거래된 실정을 감안한다면, 흡수통일로 인해 동독인들에게 다가오게 될 빈곤, 소외감,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져보려는 서독정권의 의도가 보인다.

서독은 통일 후 동부지역 주민 대다수가 생활보조대상자 수준으로 전락하여 기초생활보조지원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기 소유한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하여 교환해 줌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 동독인들에 대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독인들은 그들이 동독정권으로 받았던 연금을 1:1 비율로 통일독일에서 승계해 지급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수십 년 방치하여 황폐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그렇다고 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은 생략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통일 이후 공산체제에서 보장받던 주택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구 동독가구 생활비에서 주거 부담비중이 커지며 이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다. 2010년 기준, 독일가구의 57%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영국 31%) 수도 베를린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90%이다. 독일인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더 그 비율도 높다. 또 독일의 임대료는 월세개념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는 없다.

(구)동독의 주거비

통일 전(1989년)까지 동독인들은 일괄되게 제곱m당 0.50DM 임대료를 지불한다. 60제곱m규모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독인가구의 월 평균임대료는 30DM로 동독인 평균노동자임금(650DM)의 5%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일 직후 주거비용(월 임대료)은 제곱m/1DM으로 100% 인상된다. 연금과 동일하게 1:1 비율로 승계환산 된 임대료는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계속 상승하여 동독주민에게 임대료는 점점 더 힘겨운 부담이 된다. 동독주민에게는 힘겨운 부담의 임대료이지만 당시 서독지역에서 지불하는 평균임대료 비해서는 1/4정도에 해당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산정권의 임대료는 난방, 수도 등이 모두 포함된 보장성주거개념이었으나 통일 후에는 임대료에 난방비와 상수도 및 전기사용료 등이 추가 된다.

이러한 주거비 상승은 동독주민의 임금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임대수입만으로는 낙후된 동독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안을 주택시장에 내 맡겨 풀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참고로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임금에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사회적인 양극화현상도 동서로 나누어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

독일통일 전후 필자는 서베르린에 거주하고 있었다. 통일 즉 후 대박 난 상품은 식료품과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상점이었다. 특히 동서독 국경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상가는 통일 전까지 그 입지조건상 고객의 왕래가 적고 매출실적도 부진해 부동산업에서 비인기 지역으로 취급된 상가들이었지만, 통일 후 동독지역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1~2년 정도는 동독인들 접근이 수월한 위치상 혜택으로 동독인들의 (싸름이) 시장으로 변해 급격한 매출 실적을 올린다. 생활필수품과 식음료는 물론 단열재, 칸막이벽체, 상하수도 시설부품, 설비부품과 PVC 건축자재와 특히 페인트 등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건축자재이지만 동독에서 공급되지 못하고 또 구할 수도 없었던 건축자재를 하루라도 더 신속히 마련하여 자가 노력으로 주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한다.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비상승이라는 댓가가 따른다. 그러나 동독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수준을 단시일 내에 향상 시킬 수 있을 만큼 임금은 상승될 수 없다. 서독의 중하류 소득계층에게 제공 되는 비교적 저렴한 사회보장 임대주택 수준정도로 4~5백만 동독지역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건설과 주택개량/근대화사업 비용은 약6천억 DM(300조원, 1990년 기준)에 달하며, 거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반시설비용에는 약 7천억 DM(350조원, 1990년 기준)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열악한 동부지역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대책은 동독을 흡수 통일한 통일독일(서독)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되며, 이에 대한 예선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된다.

- 1단계 긴급대책비
심각한 파손 긴급수리사업비 - 1천억DM(50조원)
- 2단계 최소거주수준 유지/확보
주택개량/근대화사업비 - 2천5백억DM (125조원)
- 3단계 적정거주수준 유지/확보
신축, 주택개량/근대화사업비 - 2천5백억DM(125조원)

추진과정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통일 후 다가온 독일경제 불황이 주택공급추진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계획안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반응 결과는 어떠했는지, 통일 후 동서지역에서 느끼는 차별감이나 소외감은 없었는지 또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정치 사회적 집단화 움직임은 없었는지 등에 관해,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또 이런 결과는 통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려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의미도 크다.

-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서양의 주거문화'를 연재해주신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과 통일 후 다가온 독일경제 불황이 주택공급추진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계획안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반응 결과는 어떠했는지, 통일 후 동서지역에서 느끼는 차별감이나 소외감은 없었는지 또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정치 사회적 집단화 움직임은 없었는지 등에 관해,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통일 후 조성된 동부지역 주거단지 사례

건축가의 생존

제2화 : 시장의 변화와 적응의 필요성

- 제1화 : 건축가의 현실, 그리고 사회적 변화 (2011년 4월호)

Architecture

지난호(2011년 4월호)부터 건축가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코자 '삶과 건축'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기병 교수의 '건축가의 생존' 주제로 2회 연재, 기획하였다. - 편집자 주



윤기병 교수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cedek01@gmail.com

변화에 대한 적응

기존의 건축 설계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분간 현재 상태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축 시장을 극히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단지 건축가의 경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보다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환경분야이다. 현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목 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건축과 도시 분야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더욱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축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다른 주요 분야인 운송부문의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미래를 걸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산부문의 경우에도 규제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국제적 법적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통한 규제와 함께 인증이 건축물의 가치와 연계되어 가고 있다. 건축가는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시장의 수요의 변화에 따른 능력이 개발과 변화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무소들이 환경적 문제해결 능력을 핵심적 역량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건축가의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부류의 건축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12년 발표될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 제정의 최종 모임 성격의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미국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부 건축가들은 기존 건축 시장 이외에 대한 변신의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가 Rem D Koolhaas는 영국의 신발회사 Galahad Clark와 함께 United Nude 컬렉션을 선보였다. 지하 하디드 또한 2009년 리코스타와 함께 남성용과 여성용 신발 한정판 신발을 설계하였다. 프랑스 신발 회사 J.M. Weston은 2008년 프랭크 개리 설계한 한정판 신발을 출시한바 있다. 프랭크 개리는 티파니 보석회사의 작품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건축사무소 Rockwell Group의 CEO인 David Rockwell은 2010년 아카데미상 시상식 무대를 설계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과 역할 변화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능동적인 사무소의 경우, 건축 이외의 전문회사를 만들어 변신을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 건축 이외에 산업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설치 디자인, 조명 및 제품 디자인, 브랜드 및 지역사회 컨설팅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하고 있다.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Frank Gehry Technology 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Frank Gehry의 설계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회사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BIM 기술의 확산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건축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BIM의 경우 IT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적 설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설계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BIM 설계에 따른 추가적 보수의 문제와 함께 법적 책임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가의 능력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건축가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수적 입장에서부터 능동적 수용의 입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건축가의 생존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며 또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전문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을

▶ 지하 하디드가 설계한 신발

종합하고자 하는 리더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프로젝트는 매우 복잡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가들의 협업체제 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축 설계 이외에도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의 조직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 등을 필요로 한다. 보다 혁신적인 설계와 작업에 대한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전문성의 개발 없이 건축계가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로젝트의 수행은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 실내 건축가, 설비 및 구조 엔지니어, 그리고 환경 전문가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들이 이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건축가의 영역을 잠식해 나아갈 것이다. 미적인 디자인을 넘어 이를 풀어 나아갈 기술적 능력 없이는 건축계의 영역은 날로 축소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양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한정하는 우를 범하였다. 과거 건축가는 도시로부터 실내, 가구 및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이제 건축 설계 분야의 엘리트만이 건물 설계를 하며, 반대로 그 밖의 분야는 낙오자라는 암묵적 인식으로부터의 탈피와 변신 없이는 건축가를 필요로 하는 시장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조정 분야가 과거 건축의 외부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과 함께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전문가로 변신하였다. 이제는 환경을 도시를 포함하는 인공적 생태계를 다루는 분야로의 개편적 정립을 통한 종합적 전문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건축가는 과거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가구, 조명, 무대 디자인과 실내 건축을 포함한 건축물의 내부적 문제로부터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공간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 정립과 활약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건축가들이 활동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 지진 피해에서 보여 주듯이 협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봉사적 활동을 강화하여 건축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주거 공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삶의 요소로 건축가의 재능에 의한 기부를 할 수 있는 요구가 상존하는 부분이다. Shigeru Ban은 그의 동양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프로젝트로 유명하며, 세계적 건축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1995년 고베 지진과 2007년 스리랑카 쓰나미 사태 등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여 왔다. 이번 일본 지진 참사를 위하여 그는 최신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체육관 내에서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Public Architecture는 설계 사무소들의 도움을 통한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발언 확대를 통하여 건축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좋게 하며, 이를 젊고 새로운 생각의 건축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변화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건축가에 대한 좋은 인식은 사회에 대한 봉사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신진 건축가들의 생각의 전달을 막고 있는 간선제 선거제도와 같은 구태적 모습으로부터 선도적 전문가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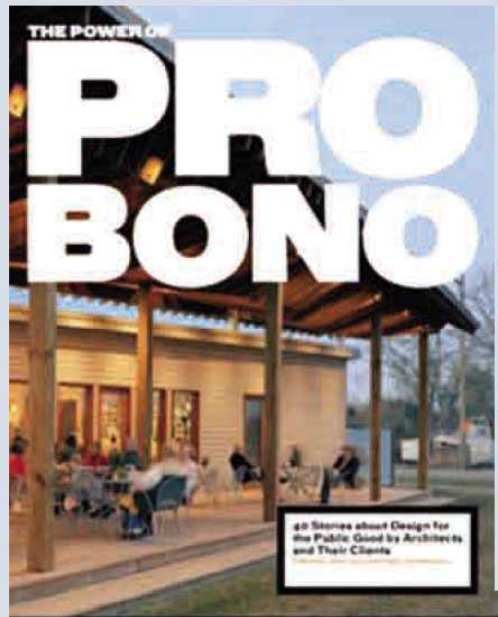
결론 - 새로운 시장을 향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 기술 활용에 대한 능력의 요구, 그리고 문화적 혼돈 상태에 따른 모든 전문직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 건축적 전문성이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침식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축가들은 과거의 보로서서 행동하던 세월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전문가로부터 '공간 환경 build environment'의 전문가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건축가와 학생들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축가'라는 직함은 오히려 계획이나 도시 디자인과 같은 다른 전문성에 대한 진입 제한과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건축가의 핵심역량이 '공간 환경의 전문가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할 경우 건축가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변화할 지도 모른다.

이제 건축가는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며 삶을 위한 공간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의 중심이며, 또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끌고 나아가는 주역이라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삶과 건축'을 연재해주신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기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Public Architecture가 수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한 책 Pro Bono

이제 건축가는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며 삶을 위한 공간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의 중심이며, 또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끌고 나아가는 주역이라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호남의 현대건축을 이끈 대표적인 건축인 한 사람!

류연창 건축사

류연창(柳連昌) 건축사는 호남의 현대건축을 이끈 대표적인 건축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故 이희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바 있으며, 80년대부터 광주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의 작품성은 '제1회 광주직할시 건축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한국 현대건축 100년展 초대작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 '광주광역시 건축단체연합회 회장', '2007 건축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 화려한 경력과 수상이 입증하고 있다. 그의 작품성과 후학양성에 대한 노력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 건축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을 받은 후학들이 이 지역 건축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류연창 건축사는 건축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후학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경험과 생각을 자주 역설하는 편이다. 회원탐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위치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건축의 사무를 방문했을 때도 인터뷰는 교육적인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그의 주장과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건축사가 되기 전까지는 '건축은 사회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여러 직업에 참여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우쳐갔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사회성을 반영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에 반영되는 사회성에는 사상, 문화, 경제, 예술, 기술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건축사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회적

그 배경에는 건축사 자격제도의 도입과 운용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사자격을 남발하는 등 시스템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살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실추시킨 것도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학제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들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임이 확실하고, 개인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의 양심과 능력을 싸구려 물건처럼 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존경하는 건축인은?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굳이 꼽으려면, 김수근, 김중업, 이희태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척박한 현실에서 사임을 버리고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선구자 역할을 끼기 말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뜻을 계승하고 있는 건축인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또한故 임영배 교수님도 존경한다. 그 분께 수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받았다. 선배이자 스승이셨던 그 분이 사무치게 그리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건축에 바쳤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앞으로도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꿈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 근처에 소극장과 전시장 그리 카페를 만들어 건축문화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마치고 풍부한 경험과 건축에 대한 열정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방 좌담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작품은 유명하고 훌륭한 것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사진을 통해 소개하기로 하였다.



광주/(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건축 대표



진도항토문화관



광주교육정보원



광주다나미디어센터

적임을 다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우리 건축사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건축은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박리다매'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는 바람직한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 출혈 경쟁, 수주 경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서재형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kr

2011년 2월부터개정된 단열법규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건축 외벽단열재

제품특징

- 단열성 : 열적성능을 극대화하여 단열성능 우수
- 경제성 : 기밀시공으로 냉, 난방 에너지 절약
- 쾌적성 : 결로예방으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
- 내구성 :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제품의 물성유지
- 작업성 : 가볍고 연질의 롤타입으로 모서리, 꺾임 시공가능



제품명	종류	규격	용도
SP5000-23T	Roll Type	23mm×1.2m×1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SP5000-14T	Roll Type	14mm×1.2m×2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www.superondori.co.kr

S&P (주)슈퍼온도리

제조원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71-34번지
TEL.062)951-8600 FAX.062)951-1852



SUPER-ONDORI[®]
www.superondori.co.kr (한글인터넷주소 '슈퍼온도리')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고등교육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 연구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412번지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에 총사업비 14,694,000천원으로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센터와 국제교류교육·컨벤션관을 연면적 10,000㎡ 규모로 건축 예정이다. 본 건축설계경기에서 최우수작에 (주)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우수작에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작에 (주)사간 건축사사무소 안이 선정되었다.

순천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센터 및 국제교류교육·컨벤션관 신축공사

최우수작

(주)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 최재영 프랑스건축사



/부지면적: 20,000㎡ /건축면적: 4,826.59㎡(기존 1,189.29+계획 3638.30) /연면적: 13,705.46㎡ /건폐율: 24.13%(기존 5.94%+18.19%) /용적율: 60.27%(기존 16.15%+44.12%)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부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외부마감: AL쉬트판넬, THK24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94대(장애인 3대포함)

우수작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건축사



/부지면적: 20,000㎡ /건축면적: 5,409.99㎡(기존면적포함) /연면적: 15745.87㎡(기존면적포함) /건폐율: 27.04% /용적율: 75.23%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U-GLASS, 목재루버, 현무암, 화강석 /주차대수: 138대(장애인 6대포함)

가작

(주)사간 건축사사무소 최낙진 건축사



/부지면적: 20,000㎡ /건축면적: 4,092.37㎡ /연면적: 10,256.93㎡ /건폐율: 25.64% /용적율: 60.8%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121대(장애인 7대포함)

도코모모 코리아 (한국근대건축보존회)

- 광주·전라지역회 결성 총회 개최, 지역회장 천득염 교수 선출



지난 4월 23일 토요일 전국각지에서 방문한 도코모모 코리아 회원들과 광주전라지역 여러 교수, 건축사, 언론인,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도코모모 코리아 광주전라지역회 결성 총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출발했다.

지역회 회장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가 선출됐다. 앞으로

도코모모 코리아 광주전라지역회가 이 지역 근대건축보존과 관련한 뜻 깊고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에 앞서 천득염 교수의 안내로 나주지역 근대건축물(옥주저택, 나주잠사, 구 나주역)을 답사하고 논(論)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 한국농촌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5월 13일 부터 14일까지 호남대 관광캠퍼스 복지관 3층 교수세미나실에서

- 13일 금요일
 - ① 특별강연 : 농촌지역개발의 정책 방향
 - 윤동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 ② 주제발표 : 행복마을가꾸기와 농촌건축
 - 농어촌 마을가꾸기 사업의 사례 연구 (이승욱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 전남 할평 모평권역 사업추진 성과 (이명숙 모평권역운영위원회 사무장)
- ③ 종합토론
- 14일 토요일
 - ① 할평 해보 모평권역 답사
 - ② 담양 창평 삼치내마을을 답사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초청 강연회 개최

건축학과 재학생은 물론 건축에 많은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를 기대한다.

주제 : 친환경 건축설계 기법과 그 사례
 연사 : 김홍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일시 : 2011.5.26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광주대학교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세미나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hh3759@naver.com

조선대 임만택 교수

- 소우 저작상 수상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임만택 교수가 최근 경원대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훌륭한 저작 활동과 출판물 통해 건축분야에 탁월한 공헌을 한 공로로 대한건축학회 특별상인 '소우(은장)저작상'을 수상했다.

호남대 김홍식 교수

- 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김홍식 교수가 지난 4월 30일 '2011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상하공간 바닥층 격음 기준설정 및 건설공사 격음 기준설정 및 건설공사 환경분야 연구에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

World Trade Center의 붕괴와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의 문제

- 영화 「My name is Khan」을 통해서



결과의 평등에서 출발한 공산주의가 산출물의 부족으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자, 중주국인 러시아가 무너져 내리고 그 이데올로기도 허구로 판명나게 되었다. 반대로 기회의 평등과 자유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는 난공불락의 사회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온 것이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결코 자유 민주주의의 논리적 정당성이나 우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로버트 카를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냉전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인들은 이를 기회로 세계 질서를 그들의 시스템으로 강제 재편하려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는 지난 3월 24일에 개봉한 인도영화 「My name is Khan」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주인공 칸은 미국 공항에서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아 검문과 강한 물리적 제재를 받으며 이렇게 외친다. "I'm not a terrorist."

'무슬림-테러리스트'라는 공식은 9.11테러 이후부터 표면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이다.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까지 적용 시켜서는 안 된다. 영화의 첫 장면이자 마지막 장면에도 울려 퍼진 한 문장.

"My name is Khan, and I'm not a terrorist."가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볼로초를 찾던 진시황도 죽었고, 호랑이 사골 국물을 먹었다는 김일성도 죽었다. 고로 나도 죽고 인간이라는 모든 생명체 또한 죽는다. 그래봤자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아우를 줄 아는 깨어있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석 학생기자 archilly@nate.com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와 간담회 개최

- 교육시설 용역과 관련해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검토 건의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 화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성업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손홍신(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 설찬수(전주시교육청 시설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 앞서 부산대 건축공학과 이상호 교수의

'기초 학교건축물의 내진 진단 및 내진보강' 영상물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기존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방법 및 이에 대한 실현 영상물을 시청하고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어 갖은 간담회에서 이성업 회장은 "급변하는 건축환경 속에서 건축인들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성업 회장을 비롯한 참석 임원들은 교육시설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검토를 건의하였고, 특히 학교시설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업무의 체크리스트 마련 등 상호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흙의 건축사故 정기용, 흙으로 돌아가다.

- 우리시대의 건축사故 정기용 추모강연회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정기용 건축사의 추모강연회가 열렸다. 이는 studio META 대표 이종호 건축가에 의해 강연이 이루어졌다.

추모강연회는 정기용 삶의 특별한 부분, 그가 오늘 또 다른 다수의 건축가들과 차이를 갖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

하여 작품 활동부터 영향을 주었던 관련 서적들까지 강연이 이루어졌다.

정기용 건축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삶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기용 건축가는 197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하였고, 그 후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지내고 1975년~1985년 프랑스 파리 소재 건축 및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한국으로 귀국 후 1986년 기용건축을 설립했다.

그 후 꾸준한 건축 활동을 하며 '사람 건축 도시', '기억의 풍경', '김용의 건축' 등을 발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고백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길을 할 줄 아는 건축가故 정기용은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66세에 별세하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루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태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본지 박흥근 편집인, 지역 일간지서 '뉴파워 59인'에 선정

- 광주일보 창사 59년 특집, 광주·전남 미래를 밝힐 인물로 선정



건축문화사랑 박흥근 편집인이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인 광주일보가 창사 59년 특집으로 기획한 광주·전남 미래를 밝힐 '뉴파워 59인'에 선정되었다.

광주일보는 지난 4월 20일자 창사 특집호 지면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지역출신 59인을 선정하였으며, 본지 박흥근 편집인 선정 이유에 대해 '삶의 질 높이는 도시건축 방향 제시'를 들었다.

또한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인이며 어번폴리 지역건축가,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참여작가, 광주문화재단 정책 위원 등의 활동을 들어 이 지역 미래를 밝힐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뉴파워 59인'에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 광주시장 지휘자 루드비히, 미쓰에이 멤버 수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실태 조사단 모집

-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모집,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활동

광주시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 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코자 조사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 28일(목)부터 5월 12일(목)까지이며 활동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다.

총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조사대상시설은 도로, 보행시설, 공원, 공공교통시설, 공공건축물이다.

지원자격은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하여 끝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20세 이상 60세 이하만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메일(cho1546@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합격자는 5월 17일(화)에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행사참여 등에 우선권이 부여 된다.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062)613-4862에게 문의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강운태 시장과 면담가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지원 및 건축사 생계 관련 정책 건의해 확대받아



강운태 시장

심상봉 회장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은 지난 5월 6일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강운태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하여 심상봉 회장, 강석훈, 강필서 부회장과 정명철 부이사장, 강백룡 건축주택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심상봉 회장은 94년 비엔날레전시관에서부터의 첫 만남을 이야기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어 작년에 열린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에 관계 공무원과 참관하여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상봉 회장은 강운태 시장에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지속적 관심과 예산지원 확대요망', '건축설계, 김리옹역 발주시 지역건축사사무소 수주확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입요망'을 건의하였다. 또한 내년 10월 중 개최 예정인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강운태 시장은 이의 건의사항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제17차 전국여성건축사 대회 광주개최

-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일원에서



작년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전국여성건축사 대회

전국 800여 여성건축사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방문하게 된다. "CITY OF ART, 도시 예술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5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광주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전국여성건축사 대회는 매년 주제를 정해 각 시도 지역 건축물 견학 및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광주 대회에서도 의재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도청), 소재원, 창평슬로우시티 등을 견학할 계획이다.

한편 첫날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되는 여성건축사대회 총회에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이용성 국회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장 등 지역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광주대회 개최를 축하할 예정이다.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명품 건축물로 재창조 될까?

- '지명초청 경기방식' 논란, 연구·관리 제안서 5월 12일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건축설계를 '지명초청 경기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설계경기 연구와 관리 제안서를 공모하였으며 5월 12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설계경기를 통하여 시민회관을 광주 건축역사의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이며 예술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로 재조성 될 수 있는 계획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명초청 경기방식'을 통해 작품성이 탁월하고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설계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명초청 경기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 유력건축사인 A씨는 "지명초청 경기방식은 자칫 수도권 지역의 건축사들이나 유명 건축사들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주역역사성이나 지역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건축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회관은 그동안 철거 논란 속에 근대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이 지역 건축인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제기되면서 천장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 보존키로 했다.

광주건축사회 단신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6월 11일(토), 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 예정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오는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그리고 심신단련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 2009년에 이어 2년 만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 자정결의대회가 연계되므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 광주 워크샵

-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 워크샵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이 지역 건축을 탐방을 비롯한 회장단 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5월 3일 나주 해피니스C.C에서 진행됨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5월 3일 나주 해피니스 C.C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광주건축사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조선이공대학과 협약 추진

- 회원사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 예상

지난 4월 25일 열린 제4회 이사회회에서 조선이공대학과 체결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협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회원사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 예상된다.

업무대행지원팀 운영제도 개선

- 업무대행자 재지정 전산시스템에 의거 처리

제4회 이사회회에서 '업무대행지원팀 운영제도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된다.

현행	변경
▶ 사용자인 및 검사조서 부적합 사유발생 건축물 서면보고 ⇒ 시정조치 ⇒ 업무대행지원팀에서 처리 (업무대행비 추가 납부)	▶ 사용자인 조사 및 검사조서 부적합 사유 발생 건축물 서면보고(프로그램 전산시스템에 의거 처리) ⇒ 시정조치 ⇒ 재조정 (업무대행비 추가 납부)

전국 시·도 건축사회 사무국·처장 광주 방문

- 1박 2일간, 이 지역 건축문화 탐방 등 진행



전국 시·도 건축사회 사무국·처장이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광주건축사회와 전남건축사회의 주관으로 2일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 건축문화재인 담양의 소재원과 가사문학관 등 건축물 탐방이 진행되었다.

2011년 '젊은 건축가상' 공모

-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응모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2011년 '젊은 건축가상' 공모가 다음같이 진행된다.

▶ 참가 자격

- 나이 : 만 45세 이하(단, 본인이 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 인정)
-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 또는 팀
- 기존 신청자도 재응모 가능

▶ 참가 방법

- 응모 일시 : 2011. 6. 7.(화) 10:00 ~ 2011. 7. 8.(금) 17:00
- 응모 장소 : (사)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i2002.org>)
- 등록 방법 : 홈페이지상의 등록 양식 및 제출 서류 첨부

▶ 응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응모접수	6. 7. 10:00 ~ 7. 8. 17:00	홈페이지에서 등록
질의접수	6. 13. 10:00 ~ 6. 24. 17:00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질의응답	6. 13. 10:00 ~ 6. 24. 17:00	
제출서류접수	7. 4. 10:00 ~ 7. 8. 18:00	방문 및 우편
1차 심사	'11. 7. 13.	접수 서류 심사
2차 심사	'11. 7. 16.	PT 발표 심사
수상자 발표	'11. 7. 27.	홈페이지 발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①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의2 삭제)**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 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②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실무교육 강화(안 제18조 신설, 안 제30조의2)**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자격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③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안 제18조의4 신설에 대한 근거조항(삭제))**
-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 검토시 건축사등록원설립 근거조항인 제 18조의4 조항을 삭제하며,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건축사 등록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④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 등록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⑤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추가(안 제40조)**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0조)
- ⑥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부칙 제6조제2항)**
-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정 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상
-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39-9

*재입회

- 문승호 건축사/우리엔탑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82-92

전북 건축계 동정

*입회

- 강창조 건축사 / 가산 건축사사무소
- 정읍시 수성동 618번지 2층

*변경 (소재지 변경)

- 양정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대건축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5-4
- 최민성 건축사 / 알파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24-14
- 송택신 건축사 / (유)송택신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972-3

*전출

- 박형민 건축사 / 문화 건축사사무소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전출

*변경 (상호, 소재지 변경)

- 김병호 건축사 / 동원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3-8

*부고

- 이영교 건축사 / (유)조형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4월 14일(목)

*결혼

- 이재희 건축사 / 연안 건축사사무소
- 아들 - 5월 1일(일)

광주 건축계 동정

*변경 (상호, 소재지 변경)

- 조은식 건축사 / US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 서구 동암동 1002번지 207호

*결혼

- 유연욱 건축사 / 지에이 건축사사무소
- 아들 - 4월 9일(토)

*변경 (소재지 변경)

- 윤장수 건축사 / 다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문흥동 1006-1 2층
- 김추진 건축사 / 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우산동 518-80 6층
- 장근영 건축사 / 씨메이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쌍촌동 970-12
- 이용철 건축사 / 두리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암동 119-2 2층

*부고

- 정재한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4월 21일(목)
- 정호림 건축사 / 동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5월 1일(일)
- 안태경 건축사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5월 2일(월)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근, 이성엽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김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천경호, 이광영, 김기범, 박상윤, 정관성,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구체화되어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장 병 업 | 초석건설산업(주) 100만 원
정 태 호 | 건축사사무소 영일빌 20만 원
알파시스템창호 50만 원

건축문화 **사랑** 에서 알립니다.

- ① 이번호부터 새로운 지면디자인으로 시·도민에게 다가갑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 ② 건축문화사랑 주최, 건축물 탐방
일자: 2011. 5. 22(일요일) 시간: 마정
탐방장소: 전남 나주 노안성당, 영암 구림마을
참가대상자: 건축물탐방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선착순 5인)
참가비: 1만 원(식대, 교통비 포함)
※후회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세현 사장은 건축문화사랑 전담기자(광승국 010-2030-8743)에게 문의바랍니다.

세
상
사
는
느
끼
면

Essay

용서하는 마음

김순정
전남 순천시 배들마을



몇 년전 일이다. 우리 늘상 팔마 운동장에서 마라톤 연습을 했다. 그 날도 여전히 몇몇 분들과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운동을 하다 말고 우리 멍청 발걸음을 멈추었다. 키는 180이상 돼 보이고 몸무게는 100kg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버티고 서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야·미친·.." 우리 너무 기가 막혔다. 운동장 잔디밭에 아장아장 걷는 예쁜 아이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뜸 내가 아저씨한테 다가가 "아저씨, 참 듣기 거북하네요. 어린아이인데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왜 애를 들어가게 만들어!" 몇 차례 욕설이 오가고, 남자는 여자들과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다. 드디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아이엄마와 아이아빠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 경찰서에서 증인까지 서게 되고 보니,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이가 엄마에게 잔디밭에 들어갔다고 아이 엄마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은 그 남자는 호민 곤욕을 치르게 됐지만, 제 삼자인 우리가 끼여들어 한 사람을 힘들게 한 건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용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나 한사람 이해하고 용서했다면 그 자리에서 웃으며 헤어질 일을 법의 심판까지 받게 한 그 때의 일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름다운 순천이라는 명칭답게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펼서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한
편
의
시

사유 그릇입니다
의식이 깨어 사십칠 년 만에
은하계가 생겨난 것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어느 별에서 유성우에 실려
왔는지 모르지만 태초에 처음인
그 사람은 고향을 알 겁니다

웃소매 한 겹
모래알이 되어
바람되어 사라지는
저 이름없는 수많은 은하

넋을 팔 거예요
바람 흩뿌려 날라는
눈이 가려워 비비는
눈동을 엄지와 검지에 비벼대고 있는 그때

*펼서: 밀도를 상상할수 없는 중성자별

네
가
이
겨
우
책

Book

'시간과 공간의 시인' 건축사 故 정기용 선생의 '감응의 건축'

김종성 건축사
CL 건축사사무소



"건축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과 식물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지, 건축가가 처음부터 다 건축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식물은 무엇으로 건축을 완성시키는 것인가? 바로 흐르는 시간이다."

최근에 읽은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무주를 배경으로 쓰신 감응의 건축 중 일부내용이다.

며칠 전 휴의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3년 전 전라북도 도청 건축 전시회에서 인사를 드린게 잊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웠다. 1988년인가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때 난 그가 인자하고 자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프랑스에서 건축을 배우셨다고 하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가 무척 인상적 이었다. 1945년 해방동이니시니 향년 66세. 아작은 한창 일하실 나이인데 가셨다. 사인은 대장암. 병마가 할 일이 많은 천재를 데려간 것 같다.

이 책은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만 10년 동안 무주에서 펼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정리한 것이다. 마을화관, 면사무소, 공설운동장, 군청, 재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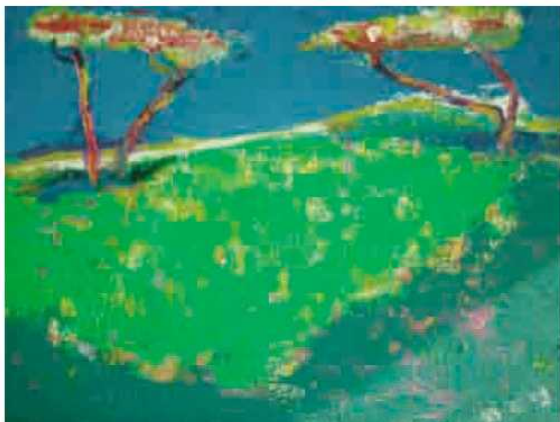
장, 청소년수련관, 곤충박물관, 향토박물관, 천문과학관, 농민의 집, 원장공장, 보건의료원, 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공설납골당, 버스정류장 등 무주에서 진행한 크고 작은 공공건축물 3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체험을 글과 사진으로 생생히 풀어내고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의 건축공간의 교감 및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공무원과의 마찰 등, 무주에서의 실제적으로 겪었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건축이야기 이다.

무주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모색>이다.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은 다양한 공공건축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보했던 무주가 늘라온 건축문화와 공간문화를 간직한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다. 책내용은 선생님이 무주 땅과 감응하게 된 자연과 각 건축물의 얽힌 이야기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설계하기 전의 스케치, 건축물 각각의 배치도, 조감도, 완공 전후의 사진, 현재 주민들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습도 제시하였다.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집을 만드는 건축사로서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할 것인가'란 근본적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책이었다. 주민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실현,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모색,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많은 감명을 받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성되어가는 건축공간

건축사 Gallery & Photo



소나무
그 바닷가에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게 서있는 소나무가 있다. 당당한 기풍을 닮을 수 있으려나...

차은영 건축사작



잠자는 그네의(?) 공주
한가롭고 여유있는 한낮에 질서긴 왕자님의 입맞춤을 기다리며..
아빠 빨리 뽀뽀 안 해주면 진짜 질겨야
우리 공주님을 덕에 저는 영원한 자랍니다.

천경훈 건축사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MICRO PILE 공법

기존건물의 기초보강, 굴착장비의 불가능한 협소한 지역 시공시,
연약지반, 사면의 보강등에 적합한 공법



시공사례



서울 연천초등학교



일산 양일중학교



장성 문화예술회관



광화문 햄머링 동상



부천 우편 편집국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RIVER CLACK
THE FLAT ROOF METAL COVERING SYSTEM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공법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적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을 위해 책임있는 설계품질, 시공품질, 최고의 품질경영과 기술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병 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완도 수협할어유통센터



장흥 우산도전망대



완도 수협할어유통센터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



광주 국악전수관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전시관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부천 가톨릭대학교 150주년기념관



청도 슬리움타운하우스



치명동 근린생활시설



돌출이음



각행돌출이음



평이음



가락이음



리빌패널



골패널

품 목

티타늄-아연판(ZINK), RIVER CLACK,(산화)동판, AL SHEET(지붕재, ECOTEEL(접합강판), 링클수지강판, 스테인레스(지붕재), 칼라강판, 고밀도목재패널



초석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구영드림빌 613호
TEL.(062)381-1138 FAX.062)381-1139